

Emerging Daily

미중 실무협상 앞두고 홍콩증시 본토대비 약세

2019. 7. 30 화요일

상해종합지수 2,941.0(-3.5pt, -0.12%) / 차스닥지수 1,566.5(+4.7pt, +0.30%)

상해종합지수는 장중 약세로 전환되며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 거래대금은 1,474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대비 28% 감소. 미중 고위급 협상, 미국 FOMC 및 정치국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 트럼프가 2020년 대선까지 미중 무역합의를 미룰 수 있고 커들로는 오는 7월 말의 미중 실무협상에서 빅딜 가능성이 낮다고 발언했지만, 시장에 미친 악영향은 제한적. 오히려 중국판 나스닥시장인 커황판의 대부분 종목이 금일 강세를 보이면서 S/W,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견인했고,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관련주의 강세가 뚜렷함. 반면 증권, 보험 등 금융주가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견인. 한편 외국인도 상해A주를 15억위안 순매도한 반면 심천A주를 16억위안 순매수

홍콩 H 지수 10,780.6(-72.6pt, -0.67%) / 항셱지수 28,106.4(-291.3pt, -1.03%)

홍콩H지수는 장중 하락폭이 확대됨. 7월 30일~31일 진행될 미중 실무협상을 앞두고 트럼프가 2020년 대선까지 미중 무역합의를 미룰 수 있다고 발언했고 커들로 NEC 위원장도 빅딜을 기대하지 말라고 발언해 경계감이 부각. 또한 7월 말 FOMC에서도 50bp의 금리인하 불발 우려로 대부분 업종 하락. 특히 부동산, 금융, 에너지 낙폭이 컸음.

인도 센섹스지수 37,686.4(-196.4pt, -0.52%)

인도 증시는 하락 마감. 재무장관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세와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음. 게다가 달러화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 역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역시 1%대 낙폭을 기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 6,299.0(-26.2pt, -0.41%)

인도네시아 증시는 하락세 지속하면서 5주래 최저치 기록. 연준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매도세가 강해지는 양상. 특히 7월 초 줄 전자담배가 상륙한 이후 로컬 담배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

베트남 VN 지수 997.9(4.6pt, +0.46%) / HNX 지수 105.3(-1.1pt, -1.05%)

VN지수는 V자 반등에 성공하며 강세로 마감. HNX지수는 1% 하락. 업종별 등락이 상이한 가운데,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이 1% 넘게 상승하며 지수대비 아웃퍼폼. 반면 소재 업종은 1% 넘게 하락. 외국인은 CTD(컨테이너건설), VCB(베트남무역은행) 등을 순매수한 반면, STB(사이공상업은행), VNM(베트남유제품) 등을 순매도

주요 이머징마켓 금융지표

(단위: p, %, %)

구분	7/29(월)	전일대비	전년말대비	구분	7/29(월)	전일대비	전년말대비
중국 상해종합	2,941	(0.1)	17.9	MSCI 이머징마켓	1,046	(0.3)	8.3
중국 심천종합	1,575	0.1	24.2	MSCI 선진국	2,213	(0.1)	17.4
CSI 300	3,854	(0.1)	28.0	S&P500	3,021	(0.2)	20.5
차이넥스트	1,567	0.3	25.3	KOSPI	2,029	(1.8)	(0.6)
홍콩 H	10,781	(0.7)	6.5	위안/달러 환율	6.89	0.00	0.21
홍콩 항셱	28,106	(1.0)	8.7	JP모건 EM통화지수	62.67	0.06	0.67
인도 SENSEX	37,686	(0.5)	4.5	달러인덱스	98.04	0.03	1.95
브라질 보베스파	103,483	0.6	17.7	인도 국채금리(10Y)	6.41	(0.12)	(0.95)
인도네시아 JCI	6,299	(0.4)	1.7	브라질 국채금리(10Y)	7.22	(0.00)	(2.01)
베트남 VN	998	0.5	11.8	중국 국채금리(10Y)	3.17	0.00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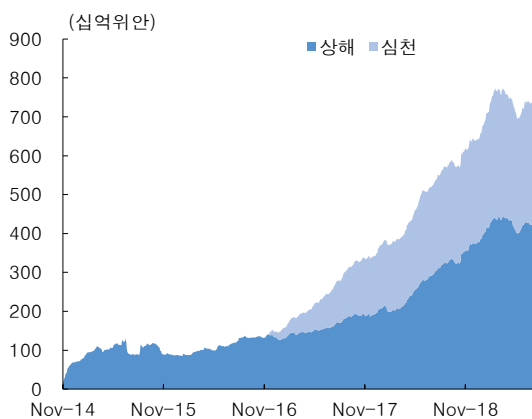


NEWS

- ▶ 중국 인민은행, '기업 레버리지비율 축소 업무중점' 발표, 상업은행의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자본금 보충을 지원
- ▶ 중국 해관총서, 러시아 전 지역으로부터 대두 수입을 허락할 것이며, 연간 수입규모는 370 만톤을 초과할 전망
- ▶ 중국 재정부, 매년 총 20 억위안 자금을 민영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혁 우수 도시에 지급할 것
- ▶ 중국 광전총국, 판호 발급을 완료한 20 개 게임 리스트 공개, 넷이즈의 게임 2 개가 포함된 반면 텐센트는 없음
- ▶ 중국 철강협회, 올해 상반기 조강 및 철강 생산량은 각각 4.9 억, 5.9 억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9%, 11.4% 증가
- ▶ 중국인수보험(601628.SH/2628.HK), 상반기 잠정 순이익 증가율은 115~135%
- ▶ 시노펙(600028.SH/386.HK), 상반기 원유 생산량 1.4 억배럴(-1% YoY), 정제유 판매량 9,177 만톤(+4% YoY)
- ▶ 베트남, 1~7 월 소매판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6%(직전치 11.5%)
- ▶ 베트남, 7 월 CPI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44%(컨센서스 2.50%, 직전치 2.16%)
- ▶ 브라질, 6 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55.2%(컨센서스 55.2%, 직전치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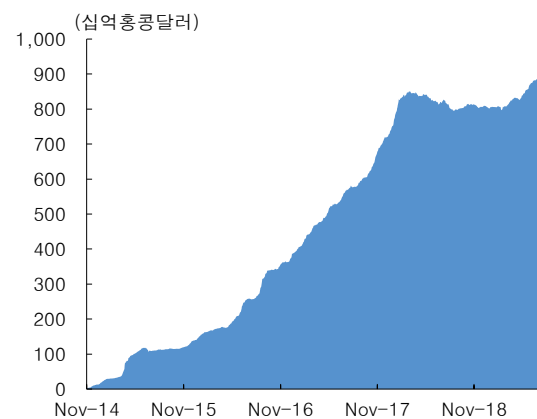
외국인들의 중국 A 주 매매 동향

후/선구통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강구통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당일 후/선구통 거래대금 상위 10 개 종목들의 순매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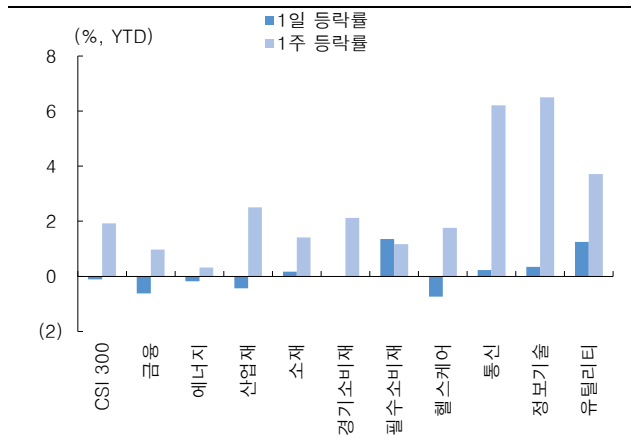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후구통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선구통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순매수액	상승률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순매수액	상승률
1	600036.SH	초상은행	36	(1.0)	1	000858.SZ	오량액	802	2.1
2	601166.SH	흥업은행	9	(0.2)	2	300498.SZ	온씨식품	203	2.6
3	600183.SH	광동색익	(11)	7.9	3	002714.SZ	목원식품	157	6.2
4	600031.SH	삼일중공	(22)	(2.1)	4	000001.SZ	평안은행	72	0.4
5	600519.SH	귀주모태	(56)	1.2	5	002415.SZ	하이크비전	67	0.2
6	600276.SH	항서제약	(75)	(0.3)	6	000651.SZ	격력전기	47	(1.5)
7	600900.SH	장강전력	(81)	1.6	7	300059.SZ	동방재부	31	(1.9)
8	600030.SH	중신증권	(112)	(0.9)	8	002475.SZ	임신정밀	6	(0.5)
9	600887.SH	이리실업	(206)	(0.3)	9	000333.SZ	메이디그룹	5	1.1
10	601318.SH	중국평안보험	(434)	(0.7)	10	002304.SZ	양허구분	(4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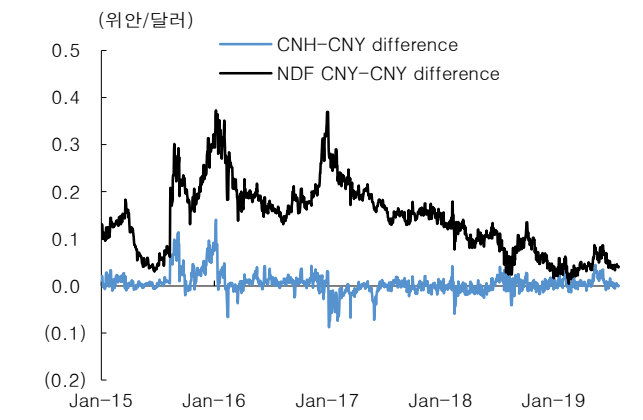
출처: Wind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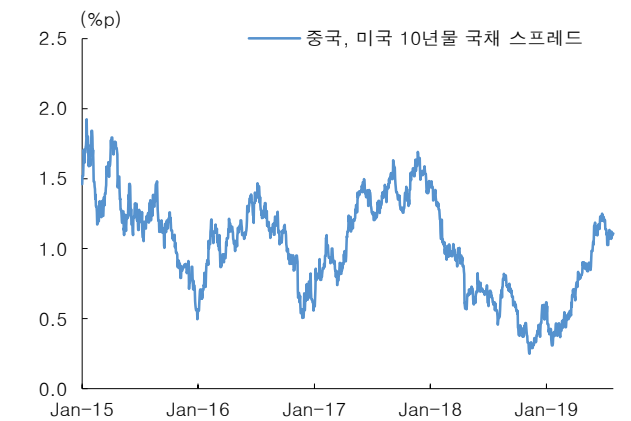
중국 CSI 업종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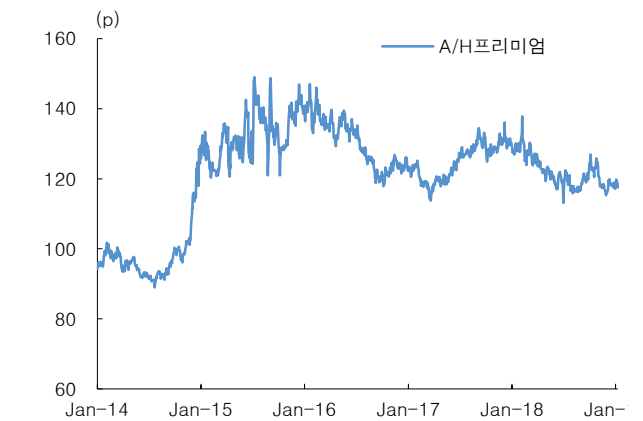
역내외 위안화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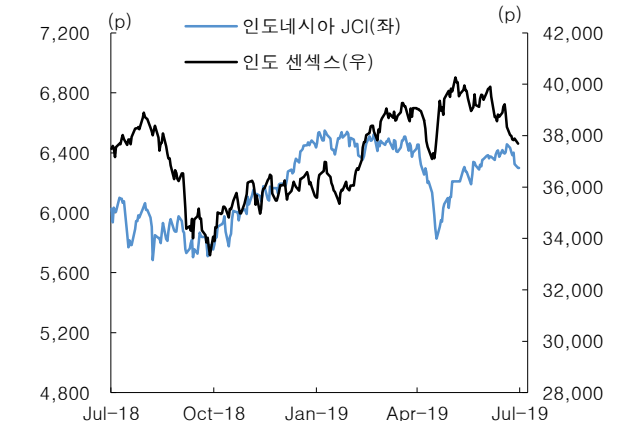
중국과 미국 금리차(10년 국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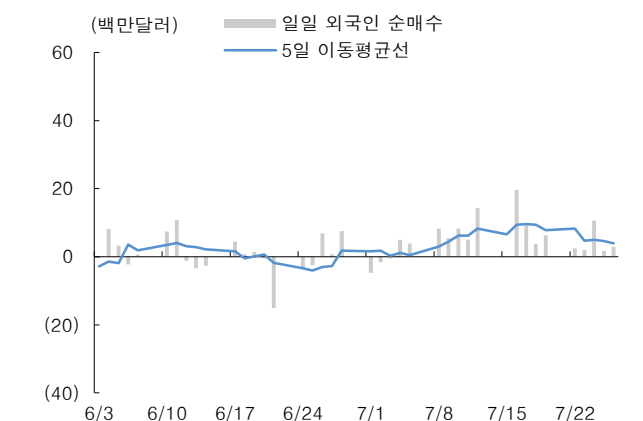
A/H 프리미엄 추이



인도네시아 JCI, 인도 센섹스 지수



베트남 증시 외국인 순매수



출처: Bloomberg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